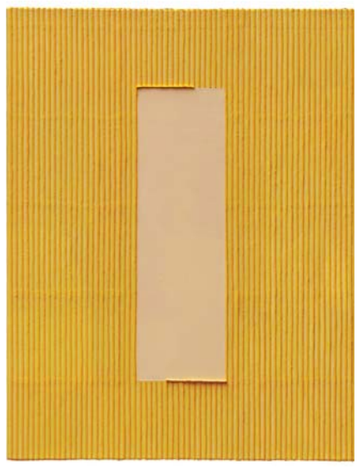
문화의 달 아트페어 '탐나는 작품' 만난다

제5회 제주국제아트페어
10월 8~11일 컨벤션센터
국내외 화랑 67곳 참여
핫플·명작 올레 등 기획
유료 전시 전환 등 변화


박서보의 'Ecriture 080213'.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Evanescence'. 제주화랑협회 제공

여름에서 가을로 개최 시기를 옮긴 제주국제아트페어(JIAF)가 종전보다 규모를 확대해 '문화의 달' 10월 서귀포에서 펼쳐진다. 이번부터 유료 전시로 전환했고 관람 목표 인원도 1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50% 이상 높였다. 사단법인 제주화랑협회와 제주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으로 제5회 제주국제아트페어 운영 계획을 내놨다.

이번 아트페어는 '탐나는 작품, 픽하고 올레(Pick your Art, Pick your Jeju)'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오감으로 전시를 체험하고 나만의 작품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축제형 아트페어를 내세웠다. 일정은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센터.

이 기간 해외 10곳을 포함 국내외 갤러리 67곳이 참여해 회화, 조각, 미디어, 설치 등 3000여 점을 선보인다. 아트페어 현장에 설치하는 부스도 약 70개로 작년보다 늘었다.

5대 핵심 전시 프로그램 중 하나는 '샛별 올레'. 루씨손, 이혜지, 신민정, 현혜정, 최수아 등 공모전을 거친 경력 10년 이하 제주 청년 작가 5명이 도전적 시선으로 제주국제아트페어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한다.

'핫플 올레'에서는 3인의 작가가 동시대 미술의 뜨거운 현장을 보여준다. 이영섭(조각), 정킹(아트토이·회화), 안소현(회화)이 그들이다.

'명작 올레'에선 박서보,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대표작을 집중 조명한다. 반복적 붓질과 절제된 채색으로 시간과 물성의 본질을 추구한 '한국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 빛과 바람을 화폭에 담아내며 자연의 장엄함 등을 형상화하는 앨리스 달튼 브라운의 특별전으로 기획했다.

'파도 올레'를 통해선 뉴욕에서 개인전을 가졌던 김완선을 가수가 아닌 화가로 만난다. 10월 9일 아티스트 토크(오후 2시), 팬 사인회(오후 2시30분)가 잇따른다.

'선흘 그림 할망'들의 '할망 올레'도 준비했다. 제주의 역사·문화·세대를 거쳐 내려온 이야기를 미술의 언어로 풀어낸다.

이와 함께 부대 프로그램으로 김국현 세무사의 '컬렉터의 그림 세금 수업'(10월 10일 오후 2시), 김기완 도슨트의 '미술을 즐기는 n가지 방법'(10월 11일 오후 2시) 주제 토크가 이어진다. '키즈 도슨트'도 새롭게 운영한다.

아트페어 개막에 앞서 제주당에서는 프리뷰 전시가 진행 중이다. 10월 5일까지 '샛별 올레' 작가 5인과 이영섭의 작품을 미리 볼 수 있다.

제주국제아트페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희숙 제주화랑협회 회장은 "아트페어를 통해 제주 작가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2026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아시아를 대표하는 핵심 아트페어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국제아트페어 누리집 참고.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시각 예술에 펼친 환상의 세계로

서귀포예술의전당 기획전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
이달 23일부터… 체험 다채

구성연의 '사탕시리즈 b.04'. 서귀포예술의전당 제공

저마다 마음속에 품은 이상적인 세계를 떠올리게 할 전시가 있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이 '2026 지역 전시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로 마련한 '당신의 원더랜드를 찾아서' 주제 전시다. 이달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추석 당일은 휴관).

이번 전시에는 구성연, 노동식, 아트놈, 유영운, 한호 등 5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회화, 사진, 조형 등 서로 다른 매체를 활용해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장면을 시각 예술로 풀어낸다.

구성연은 꽃 하나하나가 사탕으로 이뤄진 작품으로 욕망과 환상의 구조를 탐구한다. 노동식은 솜으로 채워진 공간에 유년의 기억과 가족의 온기를 담는다. 아트놈은 밝고 경쾌한 색채의 이미지로 일상의 즐거움을 이야기한다. 유영운은 대중에게 익숙한 인물과 영웅의 형상으로 우리가 믿어온 이미지의 이면을 되돌아보도록 이끈다. 한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작품으로 희망과 치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시 기간 주말(토·일요일)에는 오후 2시와 4시 두 차례 '원더랜드 상상여행'이란 이름으로 해설사가 주요 작품 설명에 나선다. 이날 '21세기 최후의 만찬'을 감상한 후 빛 투영기를 활용해 나만의 별빛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 당일 안내데스크에서 회당 선착순 10명 이내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나만의 원더랜드 그리기, 몽글몽글 매직페이퍼, 내 주머니 속 키링 만들기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예술의전당 누리집 참고. 진선희기자

전시 소식

▷정은아 도예전 '기억의 파도·26'=30여 년 도예 작업에서 물레를 쓰지 않고 손가락만으로 흙을 빚어 왔다는 정은아 작가가 고향 제주에서 물결치는 제주 바다가 떠오르는 작품으로 개인전을 펼친다. 제주 바다의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는 순간을 도자 조형으로 담아낸 작품들이 나온다. 작가는 손끝 감각을 이용한 핀칭 기법으로 고요함과 격렬함을 오가며 오르락내리락하는 파도의 리듬을 표현했다. 파도의 그것은 생성과 소멸이라는 삶의 순환을 닮았다. 이달 22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갤러리 벵디왓.

▷한희선 개인전 '풍경해독'=2024년 우도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한 적이 있는 작가가 우도 이야기를 꺼냈다. 바다로 둘러싸였지만 물이 귀했던 우도의 생활사와 해녀의 노동을 연결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버려진 성게 가시로 만든 설치 작품, 해녀 도구를 사용했던 흔적을 한지에 옮긴 입체 탁본 등이다. 익숙한 제주 풍경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전시라고 했다. 이달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산지천갤러리 4층.

▷아티스트 그룹 '비트플립'의 '미래의 냉장고'=현대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냉장고를 시각 예술의 언어로 해체하고 재정의했다. 신체가 사라지고 섭식이 필요 없는 포스트휴먼의 미래에 부패를 유예하고 인류의 생존을 통제해 온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보관될 것인가. 전시장에 놓인 냉장고는 가전제품을 넘어 인간의 조건과 생존의 방식을 묻는 상징적 구조물로 확장된다. 참여 작가 6인이 회화, 미디어, 설치, 키네틱 등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달 29일까지 서귀포 복합문화공간 라바르 2층 갤러리뮤즈.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세계

서울 제주갤러리 기획전
'날개가 한 번 펄럭일 때'
전기숙·정은혜 작가 참여

정은혜의 '물고기와 새'(2026). 제주갤러리 제공

서울 인사동 제주갤러리가 '날개가 한 번 펄럭일 때'라는 제목으로 기획전을 마련했다. 이달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이번 전시에는 전기숙, 정은혜 작가가 참여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이야기한다. 자연을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 맺고 변화하는 살아 있는 세계로 표현한 작품들이 신작을 위주로 펼쳐진다.

예술공간 이아, 우도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이력이 있는 전기숙 작가는 섬에서 보낸 시간을 통해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얽혀 움직이는 생태계를 몸으로 겪었다. 그의 작업 속에서 자연은 인간의 삶과 부단히 관계를 맺으며 함께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의 네트워크로 확장된다.

정은혜 작가는 어린 시절부터 지느러미를 펼쳐 하늘을 나는 물고기, 두 발로 걷는 새처럼 존재의 경계를 넘어서는 형상을 그려 왔다고 한다. 산호 뜨개로 사라져 가는 해양 생물을 복원하고 미술치료사로서 타인의 마음 곁에 오래 머물렀던 작가의 경험은 이번 작업에서 생명의 형상으로 이어진다.

제주갤러리는 이 전시를 두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자연을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선이 달라지는 순간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